

브로일러 생계 생산비 kg 당 1천4백70원 추정

- 연말 사료값 40%, 난방 유류비 107% 상승 영향 -
 닭 시세 1천5백원 이상 되어야만 수익 발생해

브로일러 생산비가 환율인상에 따른 사료값, 난방유류비 양등으로 역사 이래 가장 높은 kg 당 1천4백70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시세가 1천5백원 이상 되어야만 농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본회가 전 회원사 계열사육부서의 협조를 얻어 사료가격 인상 후 생산비 추정을 조사 평균 한 결과 회원사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kg 당 1천4백60원~1천4백80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12월 사료가격 인상이 있기전에 병아리가격이 마리당 3백원~3백20원 했으나 사료값 인상 후 병아리 생산비가 3백70원~3백80원 선으로 추정되며, 특히 사료가격이 수당 7백20원~8백원(kg 당 2백50원~2백70원) 하던 것이 환

율에 따라 인상 적용된 후에는 수당 1천1백원~1천2백50원(kg 당 3백60원~3백80원)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난방 연료비, 약품비 등이 천정부지로 올라 현재 입추중인 닭이 출하되는 2월 초순의 생닭 생산비는 kg 당 1천4백60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년도 동기에 kg 당 생산비 1천원대에서 무려 5할 가까이 오른 닭고기 가격으로 IMF 한파가 몰아치는 작금의 현실에 극심한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로 계육산업 전반에 어두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추정은 계열주체 10개사의 평균으로 회사에 따라 필요한 출하중량이 마리당 1.45kg, 1.5kg, 1.7kg 등 다양한데다 결제조건

등의 상이로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전체를 산술평균했을 때 병아리 가격 3백44원 수준, 사료값 1천1백27원, 연료비 1백37원, 사육비 2백18원, 약품비용 55원, 깔집 등 제비용 20원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출하율은 95%로 집계하였다. 이밖에 계열사 관리비를 감안하여 10개사 평균으로 산출한 가격이다.

계육산업계는 닭시세가 kg 당 1천5백원 이상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닭을 계속 사육해야 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입추를 결정해야 하며 사회분위기 저조의 극심한 소비부진에다 고가 닭고기 가격시대가 산업의 앞날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고심하고 있다.

중국산 닭고기수입 전면 금지 조치

농림부는 최근 중국 광둥성 및 홍콩에서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가금류의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하였다는 정보에 따라 중국산 조류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 조치 하였다.

또한 국립동물검역소는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한 중국산 닭고기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 조류독감 감염여부를 정밀조사키로 하고 미국에서 수입한 SPF란(특정병원균부재란)을 이용 에이비안인플루엔자 접종을 이달 5일 실시했다. 접종된 SPF란은 5~7일간 배양한 후 이를 분쇄해 다시 10~11일령의 SPF란에 접종한 후 혈구응집반응을 시켜 감염여부

를 확인하게 된다.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국내에서는 조류독감 감염자가 발견됐다는 보고는 없지만 일단 조류독감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에서 취해졌다.

일본, 양계산물 가공소비 증가

일본의 농림수산성 식육계란과에서 발표한 96년도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구성비를 보면 닭고기의 경우 가계소비가 30%, 가공용소비가 11%, 업무·외식용소비가 59%로 나타났으며, 계란의 경우 가계소비가 53%, 업무·가공용 소비가 47%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소비가 줄고 가공용

소비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닭고기는 75년도에 가계소비가 52%를 차지하던 것이 80년도에는 40%, 90년도에 32%로 낮아진 반면 가공용소비와 업무·외식용 소비는 75년도에 3%, 45%이던 것이 96년도에는 11%, 59%로 각각 증가되었다.

계란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계소비의 경우 75년도에 70%, 90년도에 60%대를 기록하다 업무·가공용 소비가 현저한 증가를 보이면서 96년도에는 53%를 보여주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일본국민은 96년도에 하루 평균 약 1개(55.3g)의 계란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소비가 29.5g, 업무·가공용이 25.8g으로 나타났다.

농림부, 축산정책자금 상환 연장키로

농림부는 최근 사료가격 인상과 축산물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축산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정책자금 융자금 중 98년 1월~3월 까지 상환할 원금 및 이자 상환기간을 3개월간 연장키로 하였다.

지난 12월 말 회수될 계획이었던 자금은 축발기금 1백54억원, 농특회계 51억원, 축산경영자금 1백26억원 등 총 331억여원 이었으며, 98년 1월~3월중 회수 계획인 자금은 축발기금 1백2억원, 농특회계 99억원, 축산경영자금 8백50억원 등 총 1천51억원에 달한다.

축산정책자금의 연기 대상은

축산농가, 조합, 업체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98년 1월부터 3월 까지 상환해야 할 원금 및 이자를 3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연기 대상의 별도 신청없이 일괄조치되며 세부 연기절차 및 채권보전 등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에서 여신관련 제지침에 의거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계육업계는 최근 겪고 있는 불황을 이기기 위해 계열화자금 등 축산발전기금의 상환 연장, 사료값 앙등에 따른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부진으로 고생하는 계열주체에 수매비축자금 지원 등을 차제에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동유럽, 양계산업 회복 움직임

양계산업에 있어서 유럽연합은 꾸준히 발전해온데 반해 오랫동안 전쟁으로 일관해온 동유럽국들의 양계산업은 급격한 침체를 맞이하여 왔다. 이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양계산물의 90%는 9개국으로부터 집중 생산될 정도로 편중되어 있는데 90년 이후 생산된 계란은 지난해까지 1백80만톤(3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러시아에서 1백만톤이 줄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두 번째로 생산이 많은 우크라이나에서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산업은 채란산업보다 더 큰 수난을 겪어왔는데 92년이

후 계란이 25% 줄어든 반면 닭고기는 무려 44%가 줄어들었다. 러시아에서 1백24개이던 도계장이 40여개 이상 도산한 것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미농무성 발표에 따르면 이 지역의 닭고기 생산비도 상승하여 러시아의 경우 kg당 2천1백50원에서 2천5백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헝가리의 경우 90년 이후 감소되던 양계산물이 95년부터 생산량이 늘고 있으며 무역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헝가리는 2005년 EU의 회원국으로 가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럽인구는 전체 7억3천만명에 달한다. 그중 15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과 비회원국(30개국)의 인구비율은 50 : 50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회원국들의

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생산량은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란생산량은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EU의 비회원국중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국가의 인구는 2억6천만명으로 비회원국중 3/4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평균 관세율 17%로 인하

-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은 21.2% -

중국은 지난 10월 1일부터 4천8백74개의 품목에 관하여 관세율 인하를 실시했다. 중국은 92년 이후 지금까지의 4회의 대폭적인 관세율 인하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평균 관세율은 43%에서 17%로 약 60%정도 인하됐다.

특히 하이테크 분야나 에너지 관련 등 국내에 공급 부족이 감지되는 품목은 인하폭이 특히 컸다. 다른 분야 평균 관세율과 비교해 보면 농산물이 21.2%로 총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것에 비해 공업제품은 16.4%, 석유제품은 7.9%로 총 평균 관세율을 크게 밑돌고 있다.

중국은 대외 정책면에 있어서는 국제 사회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중에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의 가입을 위해서는 한층 더 높은 시장개방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강택민 국가주석은 96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수뇌회의에서 2000년까지 관세율을 15% 전후까지 내린다고 밝혔으며 이번의 인하는 그 조기 실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생산증가 계속되는 미국 브로일러산업

미농무성(USDA)에 따르면 97년 10월의 브로일러 생산은 전년 동월을 4.6% 상회하는 1백13만4천톤이었으며 9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계도 전년 동기를 3.1% 상회하는 2천2백74만6천톤으로 집계됐다.

브로일러 생산은 오래 전부터 확대 기조가 계속 되고 있으나 97년에 접어들어서는 한파 등의 영향을 받아 전년 수준을 밑돌기도 했지만 10월까지의 누계로는 여전히 전년 동기를 상회했다.

증산이 지속되고 있는 요인으로서 브로일러 생산에 있어서 양호한 수익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수익 동향을 보면 전체의 약40%를

차지하는 러시아로의 수출이 96년 3월에 위생 문제로 한때 수출이 정지 되어 적자로 전락했었지만 그 후 수출 재개와 함께 흑자 경영으로 전환하고 있다.

9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동향을 보면 월간 평균 순이익은 6.8센트/파운드가 되고 있고 전년 동기에 비교한다면 53%의 대폭적인 증가가 되고 있다. 이것은 생산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 가격이 작년 이후 대폭적으로 하락했던 이유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USDA는 앞으로도 이러한 증산 경향은 계속되어 97년 제4/4분기의 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그 결과 97년 통계로는 전년을 4.0% 상회하는 1천2백42만9천톤이 되고, 98년에 6.6% 상회하는 1천3백24만5천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지만 브로일러의 도매가격은 97년 5월 이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9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을 1.3% 밑도는 60센트/파운드로 형성되었다.

도매가격의 약세는 생산 확대에 따르는 공급 과잉이 표면화됐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출의 주요 품목인 넓적다리기에 관하여는 연초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생산 증가 불구 세계시장 점유율 감소

EU 최대 가금육 생산국인 프랑스는 96년 생산량이 2백20만톤을 기록했으며 세계적으로는 미국, 중국, 브라질 다음가는 생산 규모를 나타냈다.

96년 프랑스의 가금육 수출량은 80만톤을 넘어서 세계 무역량의 약 12%를 차지했는데 프랑스의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세계 생산량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프랑스의 시장점유율은 매년 감소하는 대신 미국과 브라질을 비롯한 GATT 수혜국들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프랑스 가금육 업계는 생산비율 조정, 투자증가 등 일련의 개

혁을 하고 낮은 노동비를 이용해 경쟁이 보다 약한 시장, 예를 들면 EU의 생육과 가공육 시장이나 세계 시장을 겨냥한 가금육 제품개발 등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신규시장을 공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시아권의 금융위기로 세계 곡물가 하락세

최근 국제곡물시장에서 사료곡물값은 주요 수입국인 아시아 지역국들의 주가 및 통화가치 폭락 등 금융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구매력이 약화돼 미국산 옥수수를 비롯해 대두 및 대두박 등 전품목에 걸쳐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산 옥수수의 경우 12

월 5일까지 최근월 도착분 C&F 가격이 톤당 1백34.1달러로 전월 평균치인 톤당 1백 41.3달러보다 7.2달러가 하락했다.

또 미국산 대두가격도 C&F 가격이 톤당 2백90.1달러로 전월 평균치인 톤당 2백98.2달러보다 8.1달러가 떨어졌다.

이와함께 대두박도 미국산이 톤당 3백12.9달러, 인도산이 2백 75달러로 전월 평균치인 톤당 3백15.7달러, 3백7.3달러보다 각각 2.8달러, 32.3달러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용 소맥은 톤당 1백46달러, 수수는 톤당 1백46달러로 전월 평균치보다 4.25달러, 3.25달러가 각각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이같은 약세는 사료곡물의 수확기와 맞물려 아시아권의 금융위기 장기화로 수입을 자제하고 있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년도 곡물수급 전망 불투명

98년 세계 사료곡물 수급은 미국 옥수수의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엘리뇨에 따른 주요 생산국들의 생산감소와 수입국들의 수요증가로 인해 수급이 빠듯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지난해 여름부터 진행된 엘리뇨 현상은 98년도 사료곡물 수급의 가장 불안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엘리뇨가 발생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 및 어획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당해년도에는 페루 및 칠레의 어획량과 태평양 주변국들의 농업 생산이 감소하고 북미지역은 그 다음해에 나타난다.

과거 수년간의 통계로 보면 엘리뇨가 발생했던 해의 미국의 작황은 크게 증가하였고 오히려 그 이듬해의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 때문에 사료원료인 옥수수, 대두, 대두박의 국제가격은 엘리뇨가 발생한 그해에는 안정된 가격을 보여오다가 그 이듬해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같은 엘리뇨의 영향을 분석하여 지난해 우리나라 사료업체도 98년의 가격상승을 대비한 조기구매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각국의 구매 수요가 가세하여 가수요를 이끌어냈고 이 때문에 시황자체가 예전보다 빨리 강세로 진행되었고 이같은 시장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수확기의 미산 옥수수 가격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큰폭의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강세기조를 보이던 국제곡물시황이 수그러들게 되었는데 이는 아시아 지역의 통

화가치의 폭락이 이들 국가의 구매력을 감소시켜 미산곡물의 구매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곡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자이기 때문에 금융위기와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심리적 영향은 피할 수 없다.

아무튼 98년의 사료곡물 가격 전망은 북미지역 사료 곡물 생산량이 감소할 것인지 여부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들의 사료곡물 수요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료산업은 저성장 고비용시대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강자만이 생존하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되는 새로운 구조 조정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사열 육추기가 육추에는 적합

병아리를 육추할 경우 계사 중간의 공간을 데우는 것 보다는 바닥에 있는 병아리를 더 따뜻하게 해야 육추에 유리하다.

태양열은 복사열이기 때문에 지구에 도달하여 지면을 덥히게 되며 열이 오는 도중에는 덥히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샷갯형의 복사열 육추기도 중간의 공간을 덥히기 보다 바닥에 있는 병아리를

더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적은 난방비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열풍식 난방기는 육추실 전체 공기를 가열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료가 소비되며, 단열이 잘 되지 않은 육추사에서는 실내 온도 유지가 어려워 환기까지 시킬 여유가 없어 닭이 습도, 가스, 세균번식 등의 포화상태에서 육추육성되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계절적으로 여름보다 겨울에 육추한 육계에서 폐사율이 높은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

절식중 살모넬라의 피해 증가 주의

강제환우를 유도하기 위하여 절식중일 때, 또는 도계전에 10시간 절식중일 때 살모넬라가 크게 증식하여 장벽에 손상을 준다는 것이 연구자들에 의하여 보고되고 있다.

절식 강제환우 중인 백색레그혼 산란계(시험구)와 비절식 산란계(대조구)에게 각각 SE(살모넬라 엔터티티디스)균을 인공적으로 투여하였다.

시험구와 대조구 닭들에서 모두 장벽의 충혈과 염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절식한 닭들은 인공감염 8시간 후부터 시작하여 맹장, 결장(대장하부), 회장 부위의 장벽에서 더욱 심한 염증을 볼 수 있었다. 절식구에서는 배설된 분변 속의 SE도 더욱 많았다.

SE가 문제되는 계군에서는 강제환우시 절식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방법에 의한 환우가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 퍼듀대학 N.P. Macri)

98년 제1차 생산책임자 회의 개최

- 사료값, 유류대 앙등으로 생산에 큰 애로 -

지난 1월 8일 본회 회의실에서 98년 제1차 계열생산 책임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주)동우를 제외한 전 회원사에서 참석하여 최근 사료값 인상과 유류값 폭등에 따른 사육비 조정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환율 폭등과 IMF체제의 영향으로 사료값과 유류비 등 제경비가 인상되어 그동안 계약사육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 앞으로 닭사육 전망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일부 회원사에서는 지난 12월 말부터 계약농가에 인상분을 일부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회원사들도 올해 부

터는 사료비, 연료비 등의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전의 기준으로 볼 때 닭고기 1kg 당 생산원가가 1천원대 이던 것이 이번 인상분을 반영할 경우 1천3백원대로 여기에 일반 관리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1천4백원대가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1천2백원에서 1천3백원을 유지하고 있는 생계가격을 고려하면 아직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월 이후 닭고기 가격이 1천5백원 이상이 되어야만 수지가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번 유류비 인상분 적용에 있어서 회원사별로 적용시기가 다른 것 때

문에 계약사육 농가의 이동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회원사별로 사육비 전체로 볼 때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좀 더 신중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회의 관련 사항으로는 지난해까지는 격월로 개최하던 것을 올 98년도 부터는 매월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회의 일시도 매월 첫째 주 수요일로 변경하였고 당분간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는 매월 둘째 수요일에 개최되는 사장단 회의에 앞서 의견을 교환, 정리하여 사장단 회의에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 닭고기' 리플렛 제작

본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 닭고기' 리플렛 5만부를 제작 회원사에 배부했다.

소비자들이 닭고기의 특성, 영양, 구매요령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사진과 설명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특히 닭고기는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다는 것을 강조해 다이어트 식품으로서의 매력을 부각시켰다. 또한 닭고기의 부위별 특성과 신선하고 위생적인 닭고기의 구매요령을 기재하여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본회는 리플렛을 추가로 15만부 제작해 닭고기 판매장에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 적극 전개 -

지난 1월 6일 본회 회의실에서 98년 제1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정례회의가 전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유류값 인상에 따른 닭운반비 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실무자차원에서 협의하여 회사별로 조정키로 하였다. 또한 지난 12월에 제작한 닭고기 소비 홍보 리플렛이 반응이 좋아 회원사별로 추가 제작키로 하여 회원사 및 거래처에 배부키로 하였다.

또한 광고매체를 통해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적극 실시키로 하여 라디오나 TV를 통한 광고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최근 IMF한파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이럴 때 값싸고 영양가 높은 국산 닭고기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육계계열사 생산비 상승과 닭소비 부진으로 이중고

- 적자 누적으로 운영회전자금지원 절실 -

최근 외환사태에 따른 제반경비 상승으로 계열사들의 경영악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긴급필요자금이 1천1백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열사들의 어려움은 ▲사료·유류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현금결제 요구 ▲사육 수수료, 운반비 증가 ▲시설설비자금 리스 및 외화차입금 부담에다 ▲금융기관의 어음할인 규제, 여신규제, 대출금 연장 불가 및 상환독촉에 신규 대출이 안되는데다 ▲육계 가격은 생산비 미달로 적자누적이 되고 ▲소비부진으로 유통업체들이 부도로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재고는 늘고있어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고 ▲만기금융 부채상환 기간이 도래해 긴급한 수혈자금의 운영자금 지원을 바라고 있다.

한편 업계는 소모성 경비 감축과 조직인원 축소 및 임금동결, 부대 사업장 정리, 농장·부화장의 매각에다 비수익 사업장의 과감한 정리, 매수채권 회수강화, 계약농가 사육비지급 연기, 유상증자, 경비절감을 위한 주5일제 근무, 설비투자 축소 및 무제한

억제 등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계열주체는 물론 1천5백여 육계 계열사육농가도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운전자금 2천2백억원이 필요해 자체에서 1천50억원을 모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해결한다하더라도 1천1백50억원 정도는 외부 지원이 필요해 정부도움을 건의하였다.

업계는 오는 1월 말 민속절 이전에 운영자금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현재 지불해야 하는 축산발전기금 상환연기, 축협담보가치 감정가를 90% 상향 인정해 기존 담보가치 활용의 협조 등을 요청하였다.

본회 종계노계도태사업 환우 방지 효과

지난해 회원사들의 협조로 진행된 본회 종계노계도태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54건에 65만3천5백10수가 본회에서 알선하여 처리되었다.

이 사업은 종계노계의 불법환우를 방지하여 질병예방은 물론 좀 더 정확한 생산 잠재력 추정과 회원사의 회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초 96년에 입식된 1백40만수의 종계에서 97년 이월분과 도태율 등을 감안하더라도 예상한 목표치에는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 이사업의 취지와 파급효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며, 노계도태 의뢰측과 처리회사측의 이해관계 차이, 일정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시장상황 등 여러 가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98년도에는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노계도태하는 회원사와 처리하는 회원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아직도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계노계 불법환우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깨끗하고 신선한 닭고기-



대şam마니커주식회사

산란이고 깨끗한 HAIMARROW **해마로치킨**




(주) TS해마로식품
TS HAIMARROW FOODS Co., Ltd.

냉동닭고기 97년 한해 총 1만8천여톤 수입

- 96년 대비 90% 증가한 규모 -

지난 12월 한달동안 총 2천1백여톤이 수입되어 97년 냉동닭고기가 총 1만8천여톤이 수입 한해동안 된것으로 집계 되었다.

수입개방 이전인 1월부터 6월까지 6천9백12톤이 수입되었으나 수입개방이후 7월부터 12월까지 1만1천3백3톤이 수입되어 전반기 대비 64%가 증가하였다. 96년의 9천5백63톤과 비교하면 97년에는 90%가 증가하였다.

월별로는 7월 개방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11월에 2천2백57톤으로 가장 많이 수입되었으며 12월 들어 환율폭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12월 전반기 대비 하반기에 37%가 감소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는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별로 살펴보면 미국에서 수입된 물량이 7천9백41톤으로 전체의 44%, 중국에는 8천6백51톤으로 47%, 태국에서는 1천6백2톤으로 9%, 그외에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별 평균 수입 가격을 보면 미국에서 수입된 것은 kg 당 1.38\$, 중국에서 수입된 것은 1.97\$, 태국에서 수입된 것은 2.08\$로 나타나 미국산 닭고기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7년 12월 수입량 (국별) : 잠정집계

수입국별	수량 (kg)	가격 (\$)
미국	936,650	1,188,418
중국	904,827	1,694,866
태국	332,691	625,375
합계	2,174,168	3,508,659

■ 97년 총수입량 (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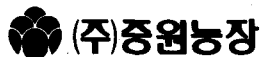
수입국별	수량 (kg)	가격 (\$)
미국	7,941,271	10,988,630
중국	8,650,867	17,059,465
태국	1,602,005	3,325,323
캐나다	26	0
호주	511	6,789
프랑스	20,064	23,000
합계	18,214,744	31,403,207

■ 97년 총수입량 (월별)

월별	수량 (kg)	가격 (\$)
1~6월	6,911,755	12,575,689
7월	1,088,439	1,877,789
8월	1,917,717	3,142,857
9월	1,908,000	3,712,000
10월	1,957,853	3,071,460
11월	2,256,812	3,514,753
12월	2,174,168	3,508,659
합계	18,214,744	31,403,207

에 이 비 안

대한양계협회 능력검정 '94, '95, '96 3년 연속 1위!
에이비안은 육계농장
개발주체 에 더 많은 이익을 드립니다.



영남부 TEL(0417)567-7792, FAX(0417)554-0771

화이트 미트의 시대!

KS닭고기회사

하림이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회사
(주)하림
HALIN & CO., LTD.